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면서 유학(儒學) 그중에서도 성리학은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글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유학을 배우고 시와 문장을 통해 익혀야 선비로 대접받으며 지식인의 행세를 할 수 있었다. 조선 초기 호남을 대표하던 고명현 유학자는 연촌 최덕지(1384~1455)와 불우현 정극인(1401~1481)이었다. 이들은 15세기의 이름난 학자였으며,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중반까지의 대표적인 학자는 금남 최부(1454~1504)와 지지당 송흠(1459~1547)이었음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16세기 중반 이후 호남에는 나라를 대표하는 학자와 문인들이 무수히 배출되어 조선이 유교 국가로 자리잡은 초석을 이룩했다.

친란한 호남의 유학과 문학에 대한 자료는 지봉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교산 허균(1569~1618)의 '성소부부고' 그리고 옥오재 송상기(1657~1723)의 '옥오

놀재 박상의 시문학과 절의(節義)

재집'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수광은 이조판서·대제학을 지낸 박학다식한 학자로 "근래에 조선의 시인은 대부분 호남에서 나왔다"라고 했다. 조선의 대표적 호남 시인으로 놀재(訥齋) 박상(朴尙:1474~1530), 석천 임억령, 금호 임형수, 하서 김인후, 송천 양응정, 사암 박손, 고죽 최경창, 옥봉 백광훈, 백호 임제, 재봉 고경명 등을 상세하게 거명한 것이다.

하균은 위의 인물들을 포함하여 호남의 뛰어난 학자와 문인으로, 놀재의 아우 옥봉 박우(사암의 아버지), 신재 최산두, 나옹 유성춘, 미암 유희춘 형제, 학포 양평손, 송재 나세찬, 면양정 송순, 국제 오겸 등의 학문과 문장을 찬양하였다. 이조판서에 대제학을 지낸 송상기는 훗날 뒷사람이지만 그 또한 호남의 학자와 문인으로 놀재·하서·석천·금호·사암·미암·고봉·일재·건재·재봉·옥봉·백호 등을 거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리학으로 명망과 덕행이 높고 절의와 문장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들이라고 칭송하였다.

우리는 이 세 자료에 차이 없이 맨 앞에 거명된 인물이 다름 아닌 놀재 박상이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박상은 광주광역시 서창면 출신으로 아우 옥봉 박우와 함께 호남의 대문호 석천 임억령을 길러 낸 대시인이자 학자였다. 옥봉의 아들이자

놀재의 조카이며 시인·학자로 유명한 사암 박손은 영의정에 대제학을 지냈으니, 충주박씨 한 집안의 명성은 알아주지 않을 수 없는 명문이었다.

박상은 시인과 학자로서만 끝나는 인물이 아니었다. 강직하고 바름 잘 찌하던 기개 높은 선비였다. 하지만 문과에 급제하고 뒤늦게 문과 증시에 장원까지 했는데도 큰 벼슬에는 오르지 못했다. 장원급제로 통정대부의 위치에 올랐으나 전라 도사·한산군수·임피현령·담양부사·순천부사·상주부사·충주목사·나주목사의 벼슬에서 머무고 말았다.

그가 담양부사 시절, 순창군수 김정과 무안현감 유옥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공동 명의로 단경양후 신씨의 복위를 위한 상소를 올린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끝내 난방으로 귀양살이를 떠나는 벌을 받았지만, 그는 불의에 눈감지 않고 정의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 상소를 올렸던 정의감이 뛰어난 선비였다.

을사사화에 정의를 부르짖다 변방으로 귀양가 죽음을 당한 금남 최부, 폐비 반대하고 복위를 주장한 박상, 망국의 서러움에 독약을 마시고 자결한 매천 황현 등. 그들의 사상과 철학, 시인 정신은 바로 의(義)를 위해서는 언제나 앞장서서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호남정신의 형성에 중요한 구실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상의 제자 석천 임억령은 무등산 원효계곡의 산자락에 식영정을 짓고 시문학을 호남인들에게 전파했다. 따라서 당대 시인이자 학자인 재봉 고경명, 건재 김천일, 충장공 김덕령 등이 임피현관의 의병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일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많은 고을에서 묵민관 생활을 했지만 청백한 관리였으며 곧고 굳은 선비정신을 지녔기에 박상은 죽은 뒤에도 대표적인 청백리로 복선되었다. 또 얼마 뒤에는 학문과 절의가 높은 학자들에게 내리는 문간(文簡)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았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성종의 둘째이던 진성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중종대왕이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진성대군은 단경양후에게 장가들었는데, 왕후는 정비가 면서도 정비에 오르지 못해, 뜻있는 선비들은 복위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왕실의 사정상 그 일은 쉽지 않아 자칫 복위 주장을 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다. 박상은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를 올렸다. 그래서 뒷날 정암 조공조는 "1515년 상소에서 조선의 나라에 국상(綱常)을 바로잡은 충언이었다"라고 찬양했다. 오늘날 순창의 '삼인대(三印臺)'는 박상·김정·유옥 등의 역사 숨결이 서려 있는 곳이다. 호남의 절의 정신은 이런 데서 굳어졌다.

2040 광주 도시계획 이렇게

아파트 과잉 공급 시대의 대응 전략



나주몽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광주의 아파트 세대는 2000년 20만 세대에서 2018년에는 39만 세대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이 61%인데 비해 광주는 78%로 광역 지자체 도시 중에서 가장 높다. 북구와 광산구는 그동안 신항 주거 지역에 아파트를 조성하여 아파트 인구 비중이 높아진 반면 동구는 원도심 지역의 젊은 연령층 유출로 아파트에 사는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사랑방 부동산의 '2020년 광주 지역 아파트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광주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28개 단지에 1만 3898세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광산구가 4856세대로 가장 많고, 이어 북구 4298

세대, 동구 2880세대, 서구 1056세대, 남구 808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착공 물량인 1만 4000여 세대가 2021~2022년 사이에 공급되고, 그 이후 1만 3000여 세대의 민간공원 아파트 물량까지 한꺼번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아파트 미분양 증가와 집값 하락, 노후 아파트 이용률 저하 등 지역 주택 시장 침체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파트의 과잉 공급은 도시의 미래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 검토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광주에서도 도시기본계획(2020~2040)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급과잉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

첫째, 광주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고 향후 매년 약 1만 세대 정도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광주의 아파트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광주 주민의 주거 생활 패턴 구조는 아파트 중심의 생활로 더욱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 주거 복지 차원에서 자치구별 아파트 분포와 특성을 고려하여 아파트 생활권을 도시의 생활권 계획에 포함시키거나 연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되면서 새로 생길 도시철도역 인근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건축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것은 광주도 이제 도시철도 역세권 형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철도 역세권을 공간 구상에 반영하여 '워킹블 시티(Walkable City)'를 통한 도시 활력과 주민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의 아파트 적정 개발과 관리 강화를 위해 통합적 도시 성장 관리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 공간 분포를 분석하여 원도심과 신도심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반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커뮤니티 강화와 첨단 인프라 구축 등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성장 관리 모델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발 수요는 대규모 신개발보다 기성 사가지 내 소규모 맞춤형의 개발 정비를 유도하고 저이용 토지를 우선 활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이용 토지와 유휴 부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획일적인 아파트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택 유형, 주택 생산 방식, 주택 입지 등을 다양화하여 지역별 특성 및 주거 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주택 공급 등 포괄적인 주택 선택권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도록 공공 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률이 저조한 기존 아파트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광주는 전국에서 아파트 거주 비중이 가장 높아 아파트가 도시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시계획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더욱이 아파트 과잉 공급 시대에 아파트 미분양 증가와 집값 하락, 노후 아파트 이용률 저하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치밀하고 고도 스마트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다.

기고

산행 때도 거리 두기는 필수



손재원
월출산국립공원 탐방시설과장

"안녕하세요!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 예방 활동으로 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탐방로 입구에서 국립공원공단 직원이 안내를 하고 있다. 안내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번잡한 절자일 수 있지만 누구 하나 불편한 기색 없이 협조하며 산행 전 열 체크, 손 소독이 이뤄지고 있다.

월출산의 성수기는 매년 봄과 가을이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단체 탐방객이 급감한 것을 보면 눈이 즐거운 봄꽃의 향연을 다수의 탐방객들이 만끽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다. 아름다운

골짜기 사이 계곡을 느낄 수 있는 여름이 다가오니 탐방객들이 월출산의 매력에 빠질 기회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시다시피 월출산 국립공원이 위치한 영암군, 강진군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어 청정 지역이라는 지역 주민의 자부심이 높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자체, 국립공원공단 할 것 없이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체육대회, 사내 회식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대부분 취소하거나 출장·평가 등 타 지역의 거주자와 긴밀한 교류를 해야 되는 사안도 화상 회의나 온라인 시스템 등 비대면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탐방로 입구, 야영장, 공중화장실 등 다중 이용 시설은 주기적으로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간격이 좁아 우려가 되는 야영장은 예약 시스템에서부터 간격 유지를 하거나 50%만 개방해 국민이 안전하게 야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탐방지원센터, 구름다리, 천황봉

등 다수의 탐방객이 모이는 거점 장소에서는 배너, 현수막 설치 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 거리 두기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100% 막을 수 없다. 청정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스스로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며 자연을 향유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탐방 문화에는 무엇이 있을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립공원 탐방 거리 두기 수칙을 안내한다.

첫 번째, 국립공원 탐방로를 이용할 때는 2m 이상 거리를 두고 우측 한 줄로 통행하기. 두 번째, 구름다리·천황봉 등 탐방객이 모이는 지역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기. 세 번째, 단체 산행은 지양하고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하기 등이다. 부득이한 단체 방문 때에는 버스 탑승 전 열 체크를 통한 사전 점검이 필수다. 또한 버스 이동 때 마스크 착용, 마주 보고 식사 금지, 도시락을 이용한 개별 식사, 손 씻기 등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 산행 때 개인별 도시락을 이용하되 만일 준비가 어렵다면 국립공원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를 이용해 보길 바란다. 카카오톡에서 '월출산, 내 도시락 부탁해!'를 검색하면 원하는 도시락 주문이 가능하다. 하루 전 예약을 해야 하며 공원 입구(천황사 탐방지원센터, 도갑분소, 산성대탐방지원센터)에서 도시락을 수령하고 먹고 난 도시락은 하산 지점 보관함에 두면 된다. 힘든 시기에 개인 위생도 챙기고 일회용품도 줄이는 한편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의 특산품을 맛보는 것이니 그야말로 1석4조의 효과다.

아직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청정의 최후 보루로 자리매김하려면 당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 모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상 청정한 국립공원을 유지해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겠다.

社說

공공기관 지방 우선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부가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지방에 우선 설립하고, 이미 설립된 공공기관도 이전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 등 11명의 여당 의원들은 최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도록 하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매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363개 공공기관 중 43%인 157개가 아직도 수도권에 남아 있다. 이처럼 지방 이

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신설되거나 공공기관으로 편입되는 기관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이전 대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막연했던 이전 규정을 명시적으로 바꾸고, 지역의 연구 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부속 연구기관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 대상 공공기관 총량이 늘고 이전 지연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지역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되기도 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를 위한 호남 등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에 금융 공기업과 공책은행 등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남하하던 코로나 그에 광주까지 오고 말았다

염려했던 상황이 거icho 발생하고 말았다. 수도권에서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대전을 거쳐 전주까지 남하 조짐을 보이더니 그에 광주까지 내려오기만 것이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9일 32명 확진자 이후 22일 만이며, 해외 입국 관련자가 아닌 확진자는 3월 8일 이후 104일 만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대구 지역 집단 발생 이후 경부선을 타고 수도권으로 북상했던 코로나19가 이번엔 호남선을 타고 남하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인구 이동이 많아지는 여름휴가 시 또다시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그동안 비교적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꼽혀 온 광주·전남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예기다.

한편 그제 코로나 진단검사서 양성 판정을 받아 전남대학교병원 국가격리

병상에 입원한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전주 청년다방에서 전주 9명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익산역에서 19일 무궁화호 열차(3호차)를 타고 광주역에 도착한 뒤 07번 버스를 타고 북구 일곡사거리로 이동해 이안PC카페에서 다음날 새벽 6시 50분께까지 머물렀다. PC방에는 당시 동일 시간대 116명, A씨가 떠난 이후 77명이 이용했다.

광주시는 A씨가 이용한 PC방 주변은 중·고등학교 여섯 곳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흡사 모를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시스템을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PC방 이용자가 1백 명이 넘는다고 한다. 시 당국은 이들을 비롯해 기차나 버스 이용객들의 신원을 조속히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 역시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에 더욱 고삐를 조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조선의 여성 성리학자 가운데 임윤지당(1721~1793)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녀는 8세 때 아버지를 여읜 데다 출가해서도 일찍 남편이 사망하는 불운을 겪었다. 그러나 학문에 매진해 '대학' '중용' 등을 재해석하고 성리학 이론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당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가 남성 중심 유교사회에서도 학문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오빠 임성주의 영향 때문이었다. 조선 10대 성리학자에 들 만큼 뛰어난 학자였던 임성주는 배운에 있어 성차별

등단 제1부부장 남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 13일 김여정이 '떨지 않아 쓸모 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태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지 3일 만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돼 버렸다. '남북소통의 상징'이었던 연락사무소 파괴는 군사적 긴장은 물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11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직장에서 눈물짓던 김여정을 떠올리는 이

남매 정치

조선 중기의 여류 시인 허난설헌(1563~1589)은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의 누이이다. 뛰어난 문재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안타깝게도 27세에 요절했다. 사후 허균에 의해 간행된 '남설헌집'은 중국은 물론 일본에까지 그의 이름을 떨치게 했다. 이들 남매가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은 이딸이라는 스승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비록 당대에는 배격을 당했지만, 절치부심했던 남매로 인해 우리 문학사는 풍요로울 수 있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

들이 많다. 평창올림픽을 참관하며 '평화의 전도사' 같은 행보를 하던 모습도 생생하다. 그뿐인가. 혹자는 두 남매가 해외 유학파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선대와는 다른 고감한 개혁·개방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었다. 불현듯 학창 시절 배웠던 월명사의 '제망매가'라는 시(항가)가 떠오른다. 죽은 부이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작품으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매도 연이 다하면 헤어진다는 인식론적 깨달음을 담고 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후일 역사는 김정은·김여정의 '남매 정치'를 어떻게 평가할까. /박성천 문화부 부장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